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되돌아보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오늘은 본당 김충귀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 미사 후 친교실에서 다과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사단 부모 모임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다음 주일 미사 후 꾸리아 월례 모임이 있습니다.
- ◆ 친교 준비 봉사자
 - 6월 29일: 다과회
 - 7월 6일: 사윤진
- ◆ 6월 친교 후 봉사: 정하상 구역
- ◆ 7월 친교 후 봉사: 김제준 구역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3,1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미사 후 성당 정문을 이용하시는 교우들께서는, 꼭 **문이 닫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54.00
교 무 금	\$340.00
감 사 헌 금	\$100.00
BAA	\$100.00

- 교 무 금: 고상식 해주영 사윤진
- 감사헌금: 신현대
- BAA: 사윤진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June 29, 2008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만남>

4세기경, 상아부조, 스타비아성 고미술관, 이탈리아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12,1-11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헤로데의 손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화답송



제 2 독서 티모테오 2서 4,6-8. 17-1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6,13-19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495단 6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6/22/08 (225주)

♣ 총누계: 197,538단 12,674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6월 29일	7월 6일
해설자	김오경	신현태
독서/봉헌	서경환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55 ♫ 봉헌: 340
♫ 성체: 498 197 ♫ 파견: 291

생명의 말씀

겸손한 신앙과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교구

오늘 우리는 2천 년 교회 역사와 함께하며, 특별히 로마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입당송에서도 고백하듯, 그들은 육신을 지니고 사는 동안 자신들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진정 교회의 위대한 두 등불이며 굳건한 신앙으로 빛나는 두 사도에게 교회는 오늘 깊은 찬송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래아의 어부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삶의 터전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바오로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의 걸음을 갖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 장은 사울로 불리던 그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잘 알려줍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완고했던 그의 마음을 땅에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동안 사울이 박해한 그리스도교와 자신이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사울이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니아스에 의해 선포된 복음과 안수를 통해 비로소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해 주듯, 특별히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대답하신 예수님. 이토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하느님 생각과 인간 생각의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기는 일에 앞장섰던 바오로의 모습과 이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느님께서 인간적 연약함 혹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도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기도에서 말하듯, 모든 일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아 준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교회가 충실히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연약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노래하듯, 주님께서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늘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기리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과 바오로가 지닌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끝난 후 우리는,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가 하고 있듯, 우리 역시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